



# '96 젊은 춤꾼들의 가을나기

'96. 10. 2 (수) 19:30



부산문화회관 중강당

P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

회원권 / 일반 5,000원, 학생 3,000원

공연문의 / 시립예술단 홍보부 ☎ 623-0179

포스 버스정류소앞) ■ 광복동 국민음악사(245-4229 외국서적 골목) ■ 광안리 필하모니(755-4005 바다파출소앞) ■ 남천동 대일통상(628-4437 대남로타리) ■ 대청동 하모니영창피아노(246-4000 대청육교옆) ■ 대연동 연학도사(623-9404 경성대앞) ■ 동래 현인소리방(518-0686 부산대앞) ■ 범천동 중앙악기(633-5300 부산학원옆) ■ 신창동 새한영창피아노(246-0118 새부산예식장옆) ■ 서면 부산음악사(803-1527 서면학원옆)/영광도서 1000 태화소풍옆) ■ 해운대 해운대약국(752-0100 해운대시장입구) ■ 하단동 영창피아노 하단대리점(208-2150 성모병원옆)



## 비탈진 황토길에 한 줌의 재를 날리며



▷ 안무·구성 / 장래훈



### 스텝

총 감독 / 이노연 (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안무자)

훈련지도 / 홍기태

기획 / 박소윤

소품 / 안정숙

출연 / 이송희, 장래훈, 박선영  
김주영, 성동헌, 권봉정  
박미영, 김경희, 박재현  
한수정, 허경미

### 작품해설

집이 없는 자는 집을 그리워하고  
집이 있는 자는 빈 들녘의 바람을 그리워한다.  
나 집을 떠나 황토길 위에 서서 생각하니  
삶에서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.  
모든 것들이 빈 들녘의 바람처럼  
세월을 몰고 다만 멀어져 갔을 뿐.  
어떤 사람은 울면서 웃을 날을 기다리고  
웃는 자는 다시 웃음 끝에 다가올 울음을 두려워한다.  
나 길가에 피어난 풀에게 묻노니,  
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를.  
살아있는 자는 죽을 것을 염려하고  
죽어가는 자는 더 살지 못했음을 아쉬워한다.  
자유가 없는 자는 자유를 기다리고  
나그네는 자유에 지쳐 황토길에 쓰러진다.



# 나 밖의 나



▷안무·구성 / 장은미

## 작품해설

존재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며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타(自他)의 관계 설정은 고립화의 과정이 아닌, 살아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.

외부란 '당신'과 '나'의 관계가 만들어 낸 것이다.

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내부의 심적 상태를 외부에 투영한 것이다.

세상 속의 '나'가 혼란스러우면 '나'의 외부적 표현인 세상도 똑같이 혼란스러워진다.

개개인의 '나'가 모여

우리, 사회, 나라, 우주일수도 ...

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...

어느 누구도 외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.

그러므로 '나'란 '존재적 나'뿐 아니라

'나 밖의 나' 역시 '나'인 것이다.

## 스텝

소	품 /	안정숙, 박정숙, 이지향
출	연 /	강휘지, 정진희, 황선희 김향숙, 장해정, 이성원 송현주, 허복희, 이지향 김미리, 이정인, 임현정 김현숙